

# 교실붕괴 이대로 좋은가

수업중 자고 떠들고...교사·학생 '서로 만생각'  
"제자는 배움사랑하고 스승은 善道로 인도"  
획일적사고 강요 교육방식 대폭 개선돼야



그림·최정근

한 학생이 교과서를 발기발기 찢고 있다. 놀라서 "너 이게 무슨 짓이니?" 라고 물으니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제 취미예요" 라고 한다. 학교들이 이처럼 손 쓸 겨를도 없이 무너져가고 있다. 학교라고 할 때에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출석을 부르고 자는 아이 깨우게 하고, 이어폰 빼게 하고, 휴대폰 끄게 하고, 교과서 꺼내게 하고, 수업중 못떠들게 하고, 자는 학생 또 깨우고... 이런 수업이 아니라 전부예요."

최근 전교조 주최로 열린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교사들의 체험담이다.

이런 모습은 학교에서 이미 일상화 돼

있다. 붕괴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다. 중학교에서는 그래도 멀하지만 고등학교 교실은 배움터의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교사의 지식과 질책을 제대로 따르는 학생도 별로 없다.

지난달 26일 서울과 강릉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300여명이 '교실모습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행평가 도입 등 현실성 없고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탓했고, 교사들은 교사를 개혁대상으로만 삼는 풍토에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모여교 김혜련 교사가 최근 펴낸 <학교종이 팽팽함>(미래M&B 刊)은 이같은 학교붕괴 현상이 위험수위를 넘어섰을

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학교 문을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짓눌리고 수업시간이 되면 숨이 막힌다. 책상이고 교탁이고 때때러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김교사는 털어놓는다.

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사가 없어 애를 먹고 있기도 하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자는 많은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교사 임용이 되지 않아 과잉수업이 빚어지고 있다.

**대책**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가. 교사와 전문가들은 교사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 평준화 시책의 단점 보완, 공교육의 질 향상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실과교의 뿌리는 변모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념과 사고방식에 있다. 김혜련 교사는 "학교 문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육구 자체가 다량생산 시대는 아이들에게 획일적 공간과 사고를 강요하는 방식의 교육은 아이들에게서 꿈과 상상력을 빼앗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역설적이지만 교실붕괴를 막는 유일한 길은 기성세대의 반성과 이에 따른 신세대와의 조화와 공존에 있는 것이다.

<선생자경>에 "제자는 마땅히 배움을 반드시 사랑하며, 그릇된 행위가 없게 하며, 스승을 반드시 공양해야 하고, 스승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선도(善道)를 가지고 인도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제자와 스승이 마땅히 제 본분을 지키고, 사회가 이들과 함께 호흡할 때만이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 생활정보

#### 경로연금 대상 늘린다

**생활** 정부는 내년부터 71만5천 명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1인당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의료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노인 연령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결식노인 급식지원을 확대, 내년에 국고 77억원을 지원받아 월 200만명의 노인에게 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 학교건물 금연구역 포함

**생활** 보건복지부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과 체육관 건물에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을 이달 말에 공포,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흡연구역 이외의 교무실, 강의실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 섬·신간서도 무료인터넷

**통신**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 울릉도·홍도·거문도·노화도·대청도 등 섬지역과 강화도·정신·철원 등 산간지역 전국 101개 우체국에 위성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청소년고민 인터넷 상담

**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청소년상담 종합정보망 '유코넷'(YouCoNet)(www.yuconet.or.kr)을 지난 1일 개통했다. 상담서비스는 학업·진로·성격·가정문제 등에 대해 컴퓨터를 통해, 게시판 상담, E메일 상담, 채팅 상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 하루 1시간운동 유방암 예방

**건강**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을 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브리검병원과 의비탈리 로크웰 박사가 14년에 걸쳐 12만1천7백명의 미국 여성(30~55세)을 대상으로 운동습관과 유방암 발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수험생 위한 기차여행

**여행** 철도청은 수능시험 뒷바라지를 한 학부모의 피로해소 기차여행 상품을 개발해 수능시험이 끝난 뒤인 19일 1박2일 코스로 운행한다. 오전 8시10분 서울역을 출발해 화양사, 지리산 노고단을 관광하며, 둘째날에는 우리나라 3대 기도처중 한 곳인 남해 금산 보리암과 상주해운장을 거친다. 비용은 4인실 기준으로 10만7500원. (02)392-7788 (042)481-3287

## 한국 뇌물지수 세계2위

국제투명성기구 수출 많은 19개국 조사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뇌물공여국가로 발표됐다. 또 우리나라의 부패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공여목록'을 인용, 한국이 10점 만점의 뇌물 지수에서 3.4점을 얻어 3.1점을 기록한 중국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뇌물지수는 인도·브라질 등 수입국의 기업·은행 등의 임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770명을 상대로 수출업체들 중 어느나라 사람이 뇌물을 제공하는지를 설문조사해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각국의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99개국 중 자메이카 리투아니아와 공동 5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부패지수 5.02(54개국 중 27위)를 기록한 이래 97년 4.29(52개국 중 34위), 98년 4.2(85개국 중 43위), 99년 3.8로 해마다 부패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부패지수 10.0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권의 싱가포르(9.1) 일본(6.0) 대만(5.6) 몽골(4.3)도 우리나라보다 청렴한 나라로 조사됐다.

## "50년내 암·에이즈 정복"

미국인들 미래전망...핵전쟁등 우려

미국인들은 새천년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을까.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가 성인 1천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과학·기술·의학·교육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역시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응답이 많았다. 또 응답자 5명중 4명은 앞으로 50년 내 암과 에이즈 치료법이 개발되고 민주주의가 계속 확산돼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응답자의 27%는 새천년 삶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50년동안 인구과잉에 따른 식량난과 자원난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며 범죄율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전쟁으로 인한 재난 가능성도 크다고 응답했다.

임진왜란때 우리들의 도공들을 붙잡아다가 도자기를 대대적으로 생산 수출하여 부자가 되었고, 그 부를 이용하여 세계대전을 치른 나라가 일본이다.

채소 재배 농가들은 해마다 일본에서 수입해온 종자들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종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종자 생산 기능은 날이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고 외국 수입 종자에 대한 의존도는 무진 높아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외국에서 개량된 농산물들만 살아남고 전통적인 우리 것들은 사라져간다. 토종닭 토종 돼지 토종 소들이 사라지고 외국이 원산지인 개량된 것들만 판을 치고 있다.

인삼의 신비한 약효는 몇 천년 전부터 익히 알려져 온 것이다. 인삼은 한국산 인삼이 최고의 것이라고 우리들은 자부하고 있다. 한때 외국 사람들은 인삼의 원산지가 일본이나 중국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인삼이라는 말을 알지 못하고 '진생'이라는 말만 아는 것이었다. 진생은 일본인들이 만든 약초로 그것의 효험과 사용방법을 속속들이 배워간다. 그들은 약초를 가르쳐주고 녹취해준 댓가를 받아야 5달러쯤 지불할 뿐이다.

외국의 약초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단방약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이런 저런 약초들과 그것의 효험과 사용방법을 속속들이 배우고 있다. 그들은 약초를 가르쳐주고 녹취해준 댓가를 받아야 5달러쯤 지불할 뿐이다.

암과 염증과 당뇨병에 특효한 것들을 주로 훔쳐 간다. 일단 가져가서 연구를 거쳐 약품 생산을 하고 나면 몇 백 억달러의 이득을 얻게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들의 약효가 확인될 경우, 그것에 대한 제조 판매 특허를 먼저 얻어내 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들의 철쭉이나 진달래 따위의 특허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는 우리들의 철쭉이나 진달래도 내다 팔 때에는 그들 나라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하루 속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야흐로 우리 강토는 이제 속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다.



한승원 (소설가)

### "김치"가 "기무치"로

### "인삼"이 "진생"으로

### 그냥 두고볼 것인가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가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그리움의 계절인가. 잔잔하게 부서진 파도는 붉은 노을 속으로 가을을 안고 온다.

숨털 구름처럼 하얗게 피어오르는 어린 갈대숲 사이로 가득히 밀려오는 그리움 하나 그대의 투명한 눈망울이 가슴으로 와 보고픈은 그리움으로 남는다.



원장 이영숙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성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佛生)

서울시 중로구 관현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 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드폰 : 018-277-559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 반야심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수맥과 처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발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 및 입성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용린佛字체

생명의 전화 : (주) (02)2242-0331, 2242-0255 (야) (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 禪에서 본 반야심경

학림사 오등선원에서는 중국 大願조사와 無后子 도인이 투철한 禪의 차원에서 반야심경을 주해한 것을 오등선원 祖室 한암 大元선사께서 禪에 입각하여 冬安居 결계동안 소참법문을 하십니다. 納子를 우선으로 入房시키니 精進과 깨달음의 기원을 맺기 바랍니다.

1999년 11월 3일

연락처

주소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14 학림사 오등선원

전화 : 042)825-6505(대표) 042)825-1724(원주실)

### 영남불교대학

## 통신과정·인터넷과정 모집

포교사 배출기관 (조계종8호)

- 정규과정 한학기 3천명이 모이는 기적의 교육도량!
- 그 생생한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과 교계큰스님(자광스님, 박삼중스님, 무비스님 등)이 펼치는 명강의를 만나십시오.
- 1년 수료 후 졸업장을 드립니다.

교과목

- 기본과정 - 불교학개론, 예불, 반야심경
- 고급과정(선택) 천수경, 금강경, 원각경, 계초심학인문, 지장경, 법화경, 발심수행장, 화엄경, 법성계, 육조단경, 인도불교문화사
- 전화로도 신청 가능

영남불교대학  
053)474-8228  
(http://www.cyberbuddha.or.kr)

### 영남불교대학

## 통신과정·인터넷과정 모집

포교사 배출기관 (조계종8호)

정규과정 한학기 3천명이 모이는 기적의 교육도량!  
그 생생한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과 교계큰스님(자광스님, 박삼중스님, 무비스님 등)이 펼치는 명강의를 만나십시오.  
1년 수료 후 졸업장을 드립니다.

교과목

- 기본과정 - 불교학개론, 예불, 반야심경
- 고급과정(선택) 천수경, 금강경, 원각경, 계초심학인문, 지장경, 법화경, 발심수행장, 화엄경, 법성계, 육조단경, 인도불교문화사
- 전화로도 신청 가능

영남불교대학  
053)474-8228  
(http://www.cyberbuddha.or.kr)